



외국인들이 강경젓갈축제에서 젓갈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온택트 2020 강경젓갈축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택트(Ontact, 온라인 대면)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온택트 2020 강경젓갈축제'가 전 국민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찾아온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충남 논산시와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지역 특산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올해 젓갈축제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0월 14일 문을 여는 온택트 2020 강경젓갈축제는 10월 18일까지 5일간 열린다. ▲ 빅마마의 '집콕 강경젓갈 김치 담그기' ▲ 원조 밥도둑 '강경맛갯것 만들기' ▲ 강경젓갈 특가홍보 판매전 ▲ 젓갈영상 콘텐츠 '젓갈아~ 아빠를 부탁해' ▲ 오세득 셰프의 '강경젓갈 황금레시피' ▲ 샘 해밍턴의 글로벌 젓갈탐험 '강경젓갈에 빠지다' ▲ 박범신 작가의 '나만의 시간여행' ▲ VJ 현장출동 '명품 젓갈이 왜 거기서 나와' ▲ 초강추 체험 릴레이 '젓갈김치 담그기' 등 온라인으로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 생활 속 거리 두기 1단계 전환 시 10월 14~23일까지 10일 동안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강경 도심지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강경 도심지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강경 야(夜)한 거리'와 '국화전시 포토존' 등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가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와 추진위는 온라인을 통해 마련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홍보에 주력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이끌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